

KIA 타이거즈 세 남자의 시즌 포부

“맹수 되어 영광을 누리라”

김기태 감독

“기대도 되고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고향팀에서 두 번째 시즌을 앞둔 KIA 김기태 감독은 어느 자리에서 시즌 마지막을 보낼지 궁금하다. 지난 6개월의 시간 치열하게 또 치밀하게 준비를 했지만 어떤 위기가 불쑥 그를 찾아올지 긴장된다. 그러면서도 그라운드에서 맞을 열정의 순간들에 설레기도 하다.

김 감독은 29일 “작년보다는 선수들의 마음가짐, 표정, 자신감이 달라졌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가 것이 큰 소득이다. 많은 어려움도 기다리고 즐거움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팀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시즌을 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선수단은 시즌 개막에 맞춰 29일 체제를 바꿨다. NC와 개막전을 준비할 멤버들로 진용을 짠 KIA는 이날 챔피언스필드에서 시즌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며 새 출발을 다짐했다.

끝게 144경기를 내다봐야 하는 김 감독은 시범경기 등을 통해 다양한 변수에 대한 카드를 준비했고, 긴 레이스를 버틸 수 있는 선수층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표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주어진 NC 전이라는 숙제도 잘 풀어보겠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NC의 최고 멤버들이 부담 되기는 하지만 기싸움이다. 최선을 다해서 개막전을 준비하겠다”면서도 “시즌 끝나고 나서의 상대전적이 더 중요한 것이다. 무서운 호랑이, 맹수가 되어 올 시즌을 보

위기 헤쳐 나갈 분위기 조성

두려움 없는 적극적 플레이로

이겨서 재미있는 경기 할 것

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무서운 호랑이”를 목표로 김 감독은 두려움 없는 플레이를 강조해왔다.

김 감독은 “시범경기를 하면서 주루사도 나왔지만 안전하게 안 죽으려고 하면 한 베이스를 못 간다. 선수들에게 10번을 무리했을 때 6번을 살고, 4번을 실패하며 2가 플러스가 되지 않느냐고 말을 했다. 한번 죽는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니까 과감하라며 훈련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부드럽게 때리는 매섭게 선수들을 몰아붙이며 시즌을 준비했던 그는 이제 그라운드의 주인공은 선수들이라고 말한다.

김 감독은 “힘들게 시즌 준비를 시키면서 선수들이 감독을 미워하기도 했을 것이다. 이제 선수들에게 내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많은 일들이 나오니까 그 중에 하나니까 재미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자고 했다. 또 어느 정도의 영광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수들도 그라운드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또 “야구장 오셔서 스트레스 푸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다. 많이 이겨서 웃음을 드리는 게 그 방법이다. 지난해 재미있는 경기 많이 했는데, 좋은 경기 이기는 경기 하도록 하겠다. 잘 못할 때는 오셔서 욕도 하시고 스트레스 푸셨으면 좋겠다”고 팬들의 응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8년 만에 고향팀으로 복귀하게 된 투수 임창용(왼쪽)이 29일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김기태 감독과 악수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선빈아! 치홍아! 가을야구 하자”

주장 이범호

‘캡틴’ 이범호가 뜨거운 가을을 예고했다.

3년 연속 ‘호랑이 군단’의 주장을 맡아 2016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이범호의 마음은 이미 9월로 가 있다.

“김선빈과 안치홍에게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웃음을 터트린 이범호는 “그 친구들도 9월이 되면 돌아올 수 있고, 잘 준비하고 버티고 있으면 임창용 선배도 돌아오고 9월 정도에는 강한 팀이 되어있을 것이다.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며 새 시즌을 앞둔 소감을 밝혔다.

지난 시즌 많은 이들이 KIA를 최하위 후보로 꼽았는데 주저하지 않았지만 그는 6위를 이야기했다. 비록 최종 순위는 7위에 랭크됐지만 KIA는 막바지 5강 싸움을 벌였다. 올 시즌에는 ‘가을전차’를 말한다.

이범호는 “올해는 6등 위로 갈 것 같다. 멤버 잘 갖춰진 팀이 5강을 간다는 보장은 절대 없다. 투수력과 수비력 좋은 팀이 더 좋은 성적을 낼 것이다. 공격적인 부분에

9월 쬐이면 강한 팀 변모

‘KS 반지’ 꺼 보는데 소원

서 점수를 내야할 때 1~2점만 내면 좋은 시즌이 될 것 같다. NC 3연전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선수들이 준비를 잘했고, 스के줄이 없어도 알아서 찾아서 하는 느낌이었다. 다른 것보다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다는 것이 의미 있다. 간절하게 하는 선수들이 더 많이 뛰고 더 좋은 효과가 나는 것이다. 지금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이범호는 “한국시리즈 반지를 못 꺼냈다. 우승을 꼭해보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300홈런, 1000타점을 하고 싶은데 계약기간 동안 할 수 있을 것 같다. 같이 우승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성적 내서 감독님하고 오래 야구를 하고 싶은 바람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이범호는 “고참들이 2월1일에 캡틴에 들어왔는데 20일 정도에 되니까 다 만들 어진 것 같다는 말을 했다. 그만큼 한국에서 준비가 잘 되어있었던 것 같다. 고참들은 언제 유니폼을 벗을지 모르니까 어린 선수들보다 더 간절하게 운동을 하지 않



았을까 한다. 나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5강 실패 요인 중 하나로 외국인 투수들의 부진을 꼽았던 이범호는 “적용 잘하고 심성이 좋은 선수들이다. 또 중간에서 필이 역할을 잘 하는 것 같다”며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

야구선수 이범호의 바람은 우승반지와 김기태 감독과 오래 야구를 하는 것이다.

이범호는 “한국시리즈 반지를 못 꺼냈다. 우승을 꼭해보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300홈런, 1000타점을 하고 싶은데 계약기간 동안 할 수 있을 것 같다. 같이 우승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성적 내서 감독님하고 오래 야구를 하고 싶은 바람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

“고향서 모범 보이는 선배 되겠다”

귀환 임창용

언젠가는 돌아오고 싶던 고향이었다. 그러나 활짝 웃을 수 없었던 임창용의 18년만의 귀환이었다.

이제는 KIA라는 이름을 달고 뛰게 된 투수 임창용이 29일 챔피언스필드를 찾았다. 고향에서 개인훈련을 해왔던 임창용은 지난 28일 KIA 입단이 확정되자 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29일에는 고향으로 달려왔다.

김기태 감독이 가장 먼저 그를 맞았다. 덕아웃에서 악수를 한 두 사람은 감독실로 자리를 옮겨 한참 대화를 나눴다. 1999 시즌부터 2001시즌까지 삼성 유니폼을 입고 함께 뛰었던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로 다시 만났다.

취재진 앞에 선 임창용은 “고향에 돌아와서 좋다. 해태에 있다가 18년 만에 돌아왔는데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렇던 고향이지만 그리던 복귀 모습은 아니었다. 영입 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뜨

완벽한 몸 상태 아니지만

복귀때까지 준비 잘할 것

거운 감자’ 임창용. 영입이 확정된 뒤에도 팬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그도 그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지금, 김 감독이 임창용에게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임창용은 “감독님께서 내가 풀어나가야 하는 일이라면서 자신감을 키워주시는 말씀을 해주셨다”며 “3월부터 고향에서 운동했는데 아직 완벽한 몸이 아니다. 돌아올 때까지 최대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다.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선배가 되도록 하겠다. 내가 하기에 따라서 팬들의 마음이 달라질 것이다.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삼성팬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 그는 “그동안 응원을 해주신 삼성팬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이제는 다른 팀이지만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1998년 겨울, 트레이드를 통해 고향을 떠나야 했던 날 그는 타이거즈 팬들에게 아픈 이름이 됐다. 2016년 봄, 18년 만에 다시 돌아온 그는 논란의 이름이다. 그는 지난 아픔과 과오를 풀어준 고향팀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

임창용은 “그때는 나이도 어렸고 삼성으로 가게 된 것은 솔직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있다. 팀 사정상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고향팀이고 항상 야구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팀이다. 몇 번 요청을 드렸고 좋게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임창용은 육성선수 신분으로 복귀를 준비하게 된다. 한국야구위원회 징계에 따라 그는 KIA 경기의 50%인 72경기까진 행할 동안 1~2군 경기에 나설 수 없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6개월만에 실전 수비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6개월 만에 실전 수비를 소화해 복귀에 박차를 가했다.

피츠버그 선 타임스는 29일 강정호가 피츠버그 마이너리그 훈련지인 파이릿 시티에서 열린 마이너리그 경기에서 3루수로 출전했다고 전했다.

강정호가 실전 경기에서 수비를 소화한 건 작년 9월 18일 시카고 컵스전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강정호는 타격과 주루는 생략하고 5이닝 동안 3루 수비만 소화한 뒤 교체됐다.

강정호 복귀 박차 류현진

매체는 “강정호가 짧은 타구를 처리하려고 앞으로 달려오는 동작도 보여줬다”고 소개했다. 강정호는 경기 후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반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제 강정호는 타격과 수비, 주루까지 한 번에 소화해야 한다. 강정호는 마이너리그 경기 타격에서 8타수 1안타를 기록 중이며, 주루는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피츠버그 구단은 강정호 복귀 시점을 4월 중으로 잡았으며, 늦어도 5월에는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괴물투수’ 류현진(29·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마운드 복귀를 향한 계단을 착착 밟아 올라간다.

LA 타임스 엔디 맥컬루 기사는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에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다음 주 류현진이 BP(Batting Practice)에 들어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흔히 ‘라이브 피칭’이라고 부르는 이 훈련에서 투수는 타자를 타석에 세워두고 공을 던진다. 타자와 상대하며 강한 공을 던지고도 몸에 무리가 없으면 류현진은 다음 단계인 실전 연습경기를 치르게 된다.

다음주 라이브 피칭

다. 여기까지 무사히 마쳐야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돌아갈 수 있다.

라이브 피칭과 실전 연습경기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작년 3월 17일 시범경기 이후 타자를 상대하지 않았던 류현진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공을 던질 수 있는 지 점검하는 게 우선이다. 물론 류현진은 이번 주 31일로 잡힌 볼펜 피칭을 무사히 통과해야 라이브 피칭으로 넘어갈 수 있다. 다음 주 라이브 피칭까지 정상적으로 소화하면 류현진의 마운드 복귀는 말 그대로 ‘눈앞’으로 다가온다.

